



## 개도국 특허청, 한국 특허행정 배우기 열풍

말레이시아 특허청장 취임 첫 출장, 한국 배우러 왔다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한국의 특허행정 시스템 배우기에 나섰다.

특허청은, 아지즌 모하메드 사이든(Azizan Mohamad Sidin) 말레이시아 신임 특허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7월 29일부터 양일간 한국 특허행정시스템 전반을 체험하고자 한국 특허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특허행정전산화시스템(KIPO-Net)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아지즌 청장이 취임한지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특허행정을 배우기 위한 첫 출장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표단은 한국 특허청의 심사과정과 특허행정전산화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1호 공식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방문해 지식재산교육현장을 참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특허청 심사관의 한국 특허제도에 관한 교육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베트남, 중국 특허당국에서도 한국의 특허행정을 배우기 위한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 특허청의 높아진 위상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 이공계 학생들, 특허실력 뽐낸다

이명권 씨, 2010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서 지경부장관상 선정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2010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선행기술조사부문에서 이명권(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 2년) 씨가 최고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0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에 강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 등을 문제로 출제하고, 대학(원)생이 해답을 제시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년 특허 선행기술조사부문에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이 문제를 출제하였고, 전국 78개 대학 2,628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으며, 심사결과 KAIST, 서울대 등 총 21개 대학에서 64명의 수상자를 냈다.

최고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명권 씨는 LG생명과학이 출제한 ‘관절염 치료제 조성물’에 관한 핵심특허 분석 및 향후 기술발전방향을 연구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특허청, 현장출장 교육서비스 대폭 확대

선행기술검색 및 온라인출원 대상 무료교육 지원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혹시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기업, 온라인 출원방식이 까다로워 특허출원을 망설이고 있는 발명가에게 희소식이 발표되었다.

특허청은 "선행기술정보검색법과 온라인 출원서 작성법에 대한 현장출장교육을 빠르면 8월부터 횟수를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출장교육은 2007년부터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특허문서전자화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현지방문 교육과정으로 10명 이상의 단체에서 원할 경우 현지까지 찾아가서 강의하는 출원지원 교육서비스이다.

특허청 정보기획국 강철환 정보관리과장은 "최근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술검색과 온라인 출원에 대한 교육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추어 그간 매년 60회 정도로 운영해 오던 교육과정을 최대한 120회까지 늘리고, 교육대상도 기존의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특허청

## 8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대 표 자 : 천선중, 황인구
- 업태/종목 : 서비스 / 건축설계 및 감리업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24 삼성화재 성남사옥 3층
- 전화번호 : 031-751-6889
- 홈페이지주소 : <http://humanteceng.co.kr>